

# ‘새로운미래’, 세 확장으로 분위기 반전 노려

### 오영환 민주 탈당...설훈과 함께 ‘새미래’ 합류 선거보조금 기준 충족...‘기호 3번’도 도전 중 조국혁신당 돌풍, 비례대표 10석 초과 전망도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이낙연 상임고문이 이끄는 새로운미래(새미래)가 지지도 부진을 딛고 현역의원 영입을 통한 세 확장으로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 오영환 의원(조선·경기 의정부갑)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설훈(6선·부천을) 의원과 함께 새미래에 합류하겠

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선 불출마를 일찌감치 선언한 그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낙연 고문의 수행실장을 지낸 친이낙연계다. 이에 따라 새미래의 현역 의원은 김종민(재선·충남 논산계룡금산) 공동대표와 홍영표(4선·인천 부평을) 상임선대위원장, 박영순(조선·대전 대덕) 공동 선대위원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늘

어났다. 정당에 있어 현역 국회의원 5명이 주는 의미는 적지 않다. 무엇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보조금 수령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새미래 측에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공천 배제된 의원들이 더 합류할 수 있다는 기대를 거두지 않고 있다. 현역 의원의 추가 합류로 정의당 의석수(6석)를 넘길 경우 이번 총선을 기호 3번으로 치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새로운미래 관계자는 “세를 더 모아 이낙연 상임고문을 필두로 한 호남과, 세중에 출마한 김종민 의원 중심의 충청, 홍영표·설훈 의원이 이끄는 수도권

의 세 축에서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새미래는 이준석의 개혁신당과 지난 설 직전 ‘통합’ 이슈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두 사람이 손을 잡는 ‘빅텐트’로 발생할 정치적 시너지에 이목이 쏠렸던 것. 그러나 각 당 지지자 반발, 화학적 결합 실패로 내용만 격화했고 두 당의 합당은 결국 11일 만에 취소됐다. 이후 ‘각자도생’을 견고한 두 당은 나란히 지지율 정체 위기를 겪으며 주춤하는 모습이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9

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정당 지지도는 개혁신당이 2%, 새미래가 1%였다. 새미래나 개혁신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조국혁신당은 예상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단숨에 반등했다. 한국갤럽 지지도 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은 7%로 집계됐고, 비례대표 투표 의향 조사는 19%까지 기록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검찰 독재 타도’ 가치를 전면으로 내걸고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지민비조’(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구호 아래 40-50대를 중심으로 야권 지지층의 비례대표

표심을 흡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공천 내홍, 민주당 주도 범야권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 갈등에 따른 반사 효과도 없지 않아 보인다. 목표 의석수는 비례대표 10석이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최근의 지지율 호조가 이어질 경우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국혁신당은 선명성을 계속 부각하되, 내부적으로 취약하다고 판단하는 20대 및 60대 이상 연령층은 물론 중도층에도 공을 들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기사에서 언급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진수기자

## 민주 선대위 3톱 ‘심판론·전략멘토·쓴소리’ 역할 분담

이재명 대표, 당 간판으로  
전국 돌며 ‘정권 심판’ 바람몰이  
이해찬, 이재명 리더십 보강  
‘레드팀’ 김부겸은 중도 공략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서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선거대책위원회 ‘3톱’을 맡으면서 이들의 역할 분담에도 관심이 쏠린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정권 심판’ 공격수로 나서고, 이 전 대표는 총선 전략을 조언하는 멘토, 김 전 총리는 쓴소리를 하는 레드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간판으로 인지도가 높은 이 대표는 유세를 총괄한다. 전국적으로 정권 심판론을 띄울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라는 것이다. 최근 공천 작업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자 이 대표의 발길은 총선 격전지를 향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경기도 양평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부각했고, 11일에는 해병대 채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이어 14일에는 과학기술 관련 학교와 연구시설이 밀집한 대전에서 현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비판했고, 이튿날엔 부산을 찾아 여권의 ‘메가 서울’ 구상과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를 비난했다. 7선 의원 출신이자 직전 총선을 당 대표로 이끌며 대승을 낚은 이 전 대표는 ‘전략멘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오랜 당 주류인 이 전 대표는 당에 뿌리가 깊지 않은 이 대표의 리더십 보완재 역할도 한다. 이 전 대표는 정봉주 전 의원이 낙마한 서울 강북구의 새 후보 선정 문제와 관련해 이 대표에게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북구를 전략경선 지역으로 정하면

서 박용진 의원의 공천 승계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비판론이 제기되자 이 대표는 이 전 대표를 소환해 자신의 발언에 일종의 권위를 부여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전날 이 문제에 대해 “이 전 대표가 ‘선거엔 승자와 패자만 있지, 2등은 없다’고 조언했다”면서 박 의원이 공천 승계를 받지 못한 것은 불가피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김 전 총리는 공천 과정에서 크게 내용

을 겪은 당의 완충제 역할을 맡고 있다. 뚜렷한 계파적 세력이 없는 김 전 총리는 당내 통합과 함께 일종의 ‘레드팀’ 역할을 함께 하면서 중도층 표심 잡기에도 노력하는 모습이다. 김 전 총리는 전날 입정문을 내고 박용진 의원의 공천 승계 불발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 전체에 미칠 영향이 심히 염려된다. 지도부가 중도층 유권자들까지 고려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연합뉴스

## 19-23일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시·군·구청 우편 또는 직접 제출...인터넷도 가능

행정안전부는 17일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9-23일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합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선상투표 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 및 외국 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는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한 선원이다.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하면 된다. /김진수기자

## 與 공천 물갈이 34%...평균 58.2세·남성 88%

현역 114명 중 39명 교체...4년 전 43.5%보다 낮아

국민의힘의 4·10 총선 공천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어 현역 의원의 ‘물갈이’ 비율은 34%를 기록했다.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천장을 받은 후보 평균 연령은 58.2세이고 전체 후보의 88%는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관위는 전체 254개 중 249개 지역구 후보를 확정했다. 지역구 91명, 비례대표 23명 등 총 114명의 의원 중 공천장을 받아 생활한 의원은 74명이다. 불출마나 경선 포기를 결정한 의원은 19명, 컷오프·경선 패배·공천 취소 등으로 낙천한 의원은 20명이다. 이로

서 114명 중 39명이 공천을 못 받아 현역 교체율은 34.2%를 기록했다. 공천받은 후보 249명의 평균 연령은 58.2세였다. 전체 후보 중 절반에 가까운 47.4%(118명)가 60대였다. 50대는 33.7%(84명)를 차지했다. 후보 10명 중 8명이 ‘5060’인 셈이다. 70대도 11명 있었다. 40대는 28명, 30대는 8명이었다. 최연소는 경기 김포갑의 박진호(34) 후보, 최고령은 해남·완도·진도의 곡봉근(79) 후보다. 성별로 보면 249명 중 88.0%인 219명이 남성, 12.0%인 30명이 여성이었다. /김진수기자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